

大學의 開放과 成人教育

白 明 姬

(前 梨花女大 教授)

I. 大學의 開放

오늘의 한국 교육은 젊은 층의 엘리트층 양성에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일반시민으로서의 大衆教育을 지향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함께 담당해야 할 역사적인 必要性에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증좌라고 본다.

한국의 대학이 배우기를 원하는 大衆—그들이 일반 성인이든 직업인이든간에—을 외면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文化를 창조해야 할 엘리트교육을 포기할 수도 없다.

엘리트教育和 大衆教育, 이 두 가지 교육이념은 서로가 서로를 배격하고 서로 융화할 수 없는 異質性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한국 대학은 이 두 가지를 대학 속에 수용하는 大學 體制의 變容에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으로, 대학은 文化창조를 위한 엘리트교육을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추구해야 할 價値로서 받아들이고 다른 한편, 배우고 싶고 배울 능력이 있는 大衆을 수용하는 교육대상의 大衆性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이 두 가지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 사회를 발전시킬 엘리트教育

은 한국의 대학을 외면하거나 대학 이외의 장소에서 엘리트교육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한편 대학에서 소외당한 수 많은 大衆은 대학 밖의 사회속에서 배우기를 갈망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대학의 개방은 배우기를 원하는 大衆에게 대학을 개방하자는 教育對象의 擴大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개방이 文化의 創造의 機能을 大衆교육으로 내지 시킴으로서 고등교육의 일반화 내지 보편화만을 지향해야 한다는, 대학 기능 자체의 大衆化 내지 普遍化는 아니다. 오히려 교육대상을 확대함으로써 文化를 창조할 엘리트教育이 더욱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 可能性에 도전하려는 움직임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학은 선별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일정한 과정과 한정된 방법에 의한 교육을 이루어 왔다. 따라서 대학을 개방하려는 핵심은 교육대상을 擴大하고 教育方法과 課程을 多樣化하려는 教育體制의 변용 내지 혁신에 있다. 따라서 교육대상의 擴大와 教育課程 내지 方法의 多樣性을 추구하려는 것이 바로 대학을 開放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까지 우리의 대학이 젊은 층의 선별된 집단에게 한정된 교육을 해 왔던 그 風土를 벗어나, 누구나 자기의 여건에 따라 각 개인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문호를 활짝 열어놓는다는 의미에서, 대학의 개방은 體制的 閉鎖性으로부터

터의 탄피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을 개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대학이 만들어 놓은 「틀」을 허물고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대학이 고고하게 높이 쌓아올렸던 「담」을 낮추어야 한다. 학생들이 찾아 들어오게 했던 대학의 권위스러운 자세에서 벗어나, 이제는 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대학이 솔선해서 사회속에서 찾아야 한다. 상아탑적인 대학의 權威가 대중과 사회속에서 함께 하는 리더십으로 바뀔 때 도전받는 대학의 위치로부터 사회를 主導하는 대학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대학의 개방은 이미 우리에게 중대하고 진지한 實踐的 課題로 적면하고 있다. 대학 개방에 대한 價値와 肯定的 可能性이 큰 만큼, 자칫 잘못 운영되고 전개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 대학이 이루어 온 고유한 가치나 기능마저도 위축될 否定的 可能性도 충분히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개방은 한국의 教育史 내지 高等教育 發達史에 중대하고도 심각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II. 大學開放의 社會的 背景

배우고 싶고 배울 능력이 있는 對象에게 교육을 시켜야 하고 교육받을 기회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學校制度가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 새롭게 요구되고 주장되는 이념은 아니다. 오히려 발달되고 체제화된 학교제도 그 자체가 逆으로 인간의 교육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행복을 추구할 개인의 權利를 보장하지 못하게 해 온 점이 있다. 대학의 개방은 일반 성인 내지는 지금까지 교육에서 소외되어 온 집단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한다는 인도적이며 평등적인 이념을 지향하고 있는 民主主義 理念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대학의 개방은 급증하는 知識과 情報時代에 대응하여, 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 내지 창조할 수 있는 개인적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급변하는 사회는 학교교육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개인에게 계속해서 배워야 할 必要性을 느끼게 하고, 배움을 통해서만이 개인 생활이나

직업 생활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은 대학이 지니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급변하는 사회의 教育的 必要를 찾고, 고도 산업사회가 물고오는 물질문명의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精神的 價値를 추구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대학의 개방은 날로 급증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고,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專門化 教育을 담당하며, 물질문명의 피해를 극복하고 정신적 가치가 주도하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高度 産業化社會의 요청에서 출발한다.

세째, 대학의 개방은 최근 20년도 채 못 되는 平生教育의 이념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평생 동안 배워야 하고 배움을 통해서 생을 충만하게 영위할 수 있다는 平生教育의 理念은 학교의 社會化를 촉진하고 사회의 教育化를 필연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회와는 벽을 높이 쌓고 학문적 세계를 대학의 권위로 유지하려는 傳統的 大學의 체제는, 계속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회 속의 성인 내지 직업인들에게 대학을 개방할 必然性에 놓이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우리의 固定觀念은 수정되어야 하고, 연령, 성, 그 밖의 개인적인 여건에 관계 없이 언제든지 어디이고간에 대학에서 學點을 이수할 수 있고 學位를 취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대학은 인적·물적 여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다. 최대한의 공간 활용과 인적 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평생토록 배워야 할 모든 教育對象者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학위가 필요한 성인에게는 學位課程을, 직업교육이 필요한 성인에게는 職業訓練을, 실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는 실생활에 관련된 生活教育을, 소외된 노인에게는 상호유대 및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대학은 평생 배워야 한다는 평생교육의 理念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학의 문호를 넓게 개방할 價値를 지니는 것이다.

이상에서 대학의 개방과 관련되는 몇 가지 근거를 언급하여 보았다. 다시 말해서 대학의 개방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平等的, 人

本主義的 價値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며, 고도 산업사회를 주도할 精神的 價値를 추구하기 위한 움직임이며, 평생토록 계속해서 배우고 배움을 통해서 개인적 삶을 충만하게 한다는 平生 敎育의 理念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Ⅲ. 發展을 위한 前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대학의 개방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이 그 나름대로의 허용된 제도적 범위 안에서 발전시켜 왔으며, 政府 次元에서도 독립된 대학으로서의 개방대학을 설치 운영하여 왔다.

방송통신대학이나 경기공업개방대학이 바로 後者에 속하며, 각 대학 차원에서 각종 교양강좌, 직업전문화 교육, 공개특강, 지역사회 봉사교육 등을 실시한 것은 전자의 예가 된다. 미국의 지역사회대학이나 영국의 개방대학은 대학교육의 보편화를 위한 開放體制의 예가 된다. 최근 20년 동안 발전되어 온 미국 각 대학 내의 繼續敎育 내지 擴張敎育 프로그램의 개설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대상층을 확대하고 敎育課程을 다양화함으로써 성인학생들의 계속교육이 가능하도록 개방한 체제이다. 최근 뉴욕대학에서 계속교육 혹은 延長敎育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학점을 취득하고 있는 학생수는 무려 5만명이나 되고, 하바드대학에서의 연장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수도 거의 2만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대학에서 成人學生을 불러들이고, 그들이 실생활에서 배우기를 원하고 있는 바로 그 교육을 찾아내어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 준다면, 한국의 대학은 향후 10여년간은 성인 내지 직업인들의 敎育熱氣 때문에 학생의 홍수를 맞은 것 같은 현상에 부딪칠 것이다. 현재의 한국의 대학들이 그동안 졸업정원제 입학, 대학원교육의 확대, 전공과정과 교양 내지 부전공 제도의 方向設定 등으로 많은 문제를 산적해 놓고 있는 현 실정에서, 성인들에게 대학교육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은 극히 理想論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학이 성인들의 계

속 내지 확장교육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必然性 위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前提를 대학 개방을 위한 研究課題로 제시해 본다.

(1) 대학의 개방은 배우기를 원하고 배울 능력이 있는 일반 성인들이 그들의 연령, 성, 그 밖의 개인적 신분에 관계 없이 배울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2) 대학의 개방은 배우고자 원하는 성인들의 敎育의 必要에 따라 가르칠 내용, 교육기간, 교육시기, 수업형태, 평가방법, 교육장소, 교육결과 인정 등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

(3) 대학의 개방은 대학 나름의 물적·인적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活用方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4) 대학의 개방은 그 대학이 처해 있는 지역의 필요와 대학이 지니고 있는 교육목표와 대학이 수용 가능한 여건간의 相互關聯 위에서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대학마다의 프로그램은 대학 특유의 個性을 가진다.

(5) 대학의 개방은 정규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授業時間은 주말, 저녁 및 야간, 여름학기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6) 대학은 성인학습자를 위해서 학문간의 協同學位(interdisciplinary degree)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 좋다. 성인학생들은 그동안 사회나 직장에서 대체로 많은 경험을 쌓아 왔기 때문에 현재 젊은 층의 대학생들이 이수하고 있는 학과 위주의 專攻學習보다는 여러 개의 學問群 속에서 폭 넓게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성인학생들의 학점도 대학간에 서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學點 相互認定 制度를 연구·계획해야 한다. 성인학생들은 그들의 생활환경이나 직업이동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옮길 가능성이 크며, 성인학생들은 일반 학생보다 學位履修에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8) 성인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학위과정을 이수하려고 할 때, 현재의 폐쇄적인 制度의 改善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성인학습자를 위하여 입학, 학점취득 등에 관한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성인학생을 위한 定時制

(part-time)학생 제도가 인정되어야 하며 학점을 취득하는 도중에 修學을 중단할 경우라도 하더라도 언제나 다시 돌아와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는 개방적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9) 성인학생들을 위한 教材開發이나 教授方法 研究가 뒤따라야 한다. 성인학생들의 지적·경험적 배경에 적절하고 개인학습도 가능할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해야 하며 教授法 역시 그들의 흥미, 관심, 경험 등을 고려하여 발표, 토론, 현장학습 등의 다양한 學習方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10) 성인학생들은 무언가 배우고 싶어도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오랫동안 공부하는 것과는 생활을 달린 상태에서 오는 학습에 대한 불안이 있다. 따라서 學習計劃을 도와준다거나 학교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는 지도·조언의 相談을 해 주거나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11) 대학의 개방은 대학의 학생, 교직원, 학교설립자, 등학생 등 學校關聯集團의 협조적인 풍토 위에서 서서히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학 개방을 위한 前提를 보면 우리 대학들이 당장 실천할 수 없다는 느낌을 가질지도 모르고 또한 대학의 개방은 요원한 理想의 追求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보편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학자체의 노력은 그 過程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외면할 수 없다.

Ⅳ. 여름學期制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여름학기제는 대학을 개방하여 成人 및 職業人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사실, 대학을 개방하여 성인들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기는 하다. 현재의 人的·物的 條件이 성인학생을 받아들이기엔 불충분할 뿐더러, 한정된 캠퍼스에 異質의인 학습자 집단을 수용하게 되면 행정상의 복잡성, 감정적인 문제 교육 방법상의 차이점 등을 여하히 조정하느냐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여건에서 성인학생을 받아들여려고 할 때는, 그 교육 대상이나 교육의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말, 야간, 하기휴가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개방이 될 수 있다.

여름학기를 이용하여 대학이 성인학생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대학측에서 보면 物的·人的 資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行政要員을 활용하여 성인교육을 위한 충분한 뒷받침을 할 수 있고, 두 학습집단간에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한편, 성인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여름휴가를 이용해서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교육을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게 되며, 직업인일 경우에는 직업과 학습을 함께 해야 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름학기에 개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設計는 다음과 같이 윤곽을 그릴 수 있다.

1. 프로그램 目標

일반적으로 교양을 높이거나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는 성인 혹은 주부 집단보다도 學位課程을 이수하거나 직업인의 職業的 水準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1) 학위 내지 학점 이수과정
- (2) 직업교육(직업준비교육 내지 직업 재교육)
- (3) 지역사회 봉사교육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학교의 空間을 이용하고, 대학 및 대학원 학생들의 實習課程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소외된 지역사회 교육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노인, 부녀자, 근로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

목표를 설정하는 데 보다 중요한 것은 앞의 전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의 성인들의 教育的 必要를 찾고 그들이 원하고 있고 그들에게 가능한 교육방법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다.

2. 教育對象

지역내의 일반 성인 내지 직업인이 대상이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대상은 프로그램목표에 따

라 노인, 부녀자, 근로청소년 등이 될 수 있다.

3. 學習內容

프로그램의 목표에 따라 학습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야 한다. 그러나 각 프로그램에 참여할 成人學習者의 필요와 요구, 경험 등을 고려하여 실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생을 증진하게 할 수 있는 教育內容을 선정해야 한다. 현재 대학생에게 주고 있는 전공중심의 교육내용보다 학문간의 연계성 위에서 광범위한 學問群 속에서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직업인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험, 실습, 견학 등의 실제적 學習形態 內容을 선정해 나가야 한다.

4. 프로그램 運營

학습시간, 학습장소, 학습규모 등은 성인학생들의 요구에 교육적 효과를 근거로 하여 최대한의 융통성이 주어져야 한다. 만약 學點取得일 경우에는 여름의 더운 시간을 피하고 이른 아침 혹은 저녁을 이용할 수 있도록 教科를 편제해야 할 것이며, 개인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조직한다.

학습장소는 반드시 대학의 캠퍼스가 아니더라도 성인학습자의 便利와 教育效果를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비근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施設을 사용할 수 있다. 근로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이다.

성인학생의 學習人員은 그들의 신체, 정신, 정서적 특성을 감안해 볼 때 大學生의 학습규모보다 적을수록 좋으나, 프로그램 내용과 교과내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5. 教授·學習方法

교수·학습방법은 성인학습자들의 지적 특성, 경험, 관심에 따라 토의, 발표, 실험, 실습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개별학습과 집단 학습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한편 교수들

은 성인학생의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신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6. 學習結果의 評價

성인학습자의 학습평가는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어야 하나 테스트 이외에도 개인 발표, 레포트 제출, 집단토의 과정, 실험실습 과정 등의 學習過程을 참작하여 평가하는 것이 좋다.

학습자의 학점취득 과정을 정리, 보관하여야 하며, 학점은 학습자가 가능한 시기에 언제든 취득해 나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성인학습자의 학점이 대학간에서 상호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은 취업, 진급, 승진 등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체 내지 정부 관계기관과의 制度的 裝置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職業教育의 結果는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증, 수료증을 취득하게 한다.

이 밖에도 성인학습자를 위해서 휴가제도, 장학금제도가 뒤따라야 하며 遠距離 學習者에게 숙소 제공, 출장비 지급 등의 체제가 연구되어야 한다. 정부적 차원에서는 성인학생의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關係法 規定을 수정·보완해야 하며,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V. 맺는 말

일반 성인에게 教育機會를 확대하기 위한 대학의 개방을 대학 스스로가 더 이상 외면할 수도 없지만, 대학의 체계를 변용해 나가는 데 따르는 크고 작은 障壁을 피할 수도 없다,

대학이 安定과 현상유지만을 추구함으로써가 아니라 自己變容과 革新을 통해서 사회의 理想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성인과 소외된 집단을 위한 대학의 개방은 오늘날 대학이 지닌 사명이며 高等教育 歷史에 중대하고 진지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